

##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지표상 성 차이와 부모-자녀 관계

이 수 정                      이 은 진

경기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이들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가 자신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하였다. 이를 위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다면적 인성검사(MMPI)와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척도(PBI)를 실시하였다. 최종 2197명의 자료가 분석되었으며, 이 중에서 남학생은 1360명(61.9%) 여학생은 834명(38.0%) 성별 무응답자는 3명이었다. 어머니와의 결합에 관한 문항들과 아버지와의 결합에 관한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공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세 개의 요인으로 '감정적지지', '재량권 허용', '과잉보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 가지 양육태도가 대학 신입생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신입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남녀별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상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정신건강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부모의 감정적 지지와 과잉보호 양육 요인들이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대인관계인 동시에,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다. Bowlby의 애착이론이 출현한 이후 부모와의 이별, 상실이 자녀의 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의 질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이 집중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가족 구조는 서양의 평등성 개념과는 달리 부모-자녀의 위계적인 질서가 중시되고 있는 특성을 가진 바 있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정신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와 우울증간의 관계를 다룬 많은 초기 연구들은 부모의 상실이나 분리가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였고, 관련성이 경험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허나 부모의 상실 혹은 분리가 자녀의 정신건강에 인과적인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발휘한다기보다는 부모의 상실로 인한 돌봄의 결핍이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Lloyd & Miller, 1997), 따라서 상실과 분리의 경험 자체보다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Birchnell, 1993). Bibring (1953)도 유아기 때 부모의 사랑과 인정의 부족이 유아를 무기력감에 고착시키고 우울증에 걸리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상실과 분리, 그리고 사랑과 인정의 결핍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으로 Blatt, Wein, Chevron과 Quinlan(1979)은 우울한 환자들 중 일부는 어린 시절 부모들이 자신을 때로 과잉보호했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런 부모들은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범하고 아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참을 수 없어 했다고 한다. Perris(1988)는 나아가 단극성

우울증 환자들의 부모는 정서적 따스함이 적고 덜 일관된 양육태도를 지녔다고 평가되었음을 보고하였다. Parker와 Brown(1979)은 자녀의 우울증이 부모의 따스함의 부재 그리고 지나친 통제 즉 과잉보호와 유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때 과잉보호란 사생활의 침해, 지나친 통제, 그리고 죄책감의 양산을 뜻한다. 과잉보호와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이현만과 한성희(1996)의 연구가 있는데, 부모의 과잉개입은 청소년기 우울증과 유관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바 있다.

청소년기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 역시 어린 시절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이 겪는 정신건강이나 자아정체감 관련 문제들 역시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박남숙, 조영아, 최윤경, 1999; 정양은, 1979; 차재호, 김순진, 구정숙, 이명선, 1987)을 보면 12%에서 17%에 이르는 신입생들이 심한 부적응 장애를 호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심리적 부적응은 이후 휴학이나 자퇴 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대학들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의 주요 지표로서 신입생들의 정신건강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다(김동위, 1984; 김양현, 1984; 박병탁, 1986;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 2000).

대학에서 신입생 시기는 미성년에서 성인으로의 변화와 성장인 동시에 부모의 보호와 규제 속에서 진정한 자아와 자율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시간들이기도 하다. 부모의 그늘에서 성공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성인으로서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기 이후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므로 부모-자녀 관계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들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부모-자녀 관계나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이나 또래 관계에도 영

향을 미쳐,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에도 양상도 달라지게 한다고 하였다(이지원, 1999), 위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Rohner(1981)가 제작한 PARQ(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를 정원식(1970)이 제작한 가정환경 진단검사를 참고해 권순명(1993)이 총 6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한 바 있다. 현대적인 연구방법론을 동원하여 부모 자녀간의 관계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Ainsworth(1978, 1985)의 부모와의 애착에 대한 질적인 분류와 Parker와 Brown(1979)의 부모-자녀 결합유형 등이 있다. 이 중 부모-자녀 결합유형의 이론적 구분을 토대로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려 한다.

대학생활에서 발생하게 될 심리적 부적응의 유형은 한 두 가지로 요약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포괄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정신건강 지표인 MMPI를 실시하였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Hathaway와 McKinley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정신과적 진단분류를 위한 측정이 일차적 목적이다. 그러나 병리적 분류의 개념이 정상인의 행동설명에도 적용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일반적 성격특성에 관한 유추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김중술, 1988).

본 연구에서는 2001년도에 실시된 정기 신입생 정신건강 평가 결과를 분석·정리하고 부모-자녀 결합 척도(PBI)를 요인분석하여 원 저자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 분석에서 나온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 가지 양육태도가 대학 신입생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추후 상담 및 진로진도를 위하여 2001년도 신입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보는 것,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이들 학생들의 정신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지, 만일 양육태도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어떤 양태를 지니는지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 방 법

### 응답자

본 연구는 2001년도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총 3318명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를 완료한 학생들은 2197명이었으며, 최종적인 검사지 수거율은 약 66.2%에 달하였다. 남학생은 1360명(61.9%) 여학생은 834명(38.0%) 성별 무응답자는 3명 있었다.

### 도구

검사는 구조화된 질문지의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2001년도 신입생 정신건강 검사’라는 명칭으로 배포되었다. 검사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우선 기본적인 인구학적 자료들과 MMPI 정신건강검사,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는 기본적으로 정신과적 진단분류를 위한 측정 도구이다. 그러나 일반적 성격특성에 관한 유추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기에(김중술, 1996), 일반적으로 인성검사로서 MMPI 점수들을 수집하기도 한다. 현재 사용되었던 MMPI검사는 38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검사자는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혹은 “아니다”의 두 가지 답변 중 하나를 택하여 반응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반응은 주요 비정상행동의 종류를 측정하는 10가

표 1. MMPI 하위 척도 상에서의 T점수 평균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녀특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증	경조증	내/외향성
평균	49.27	46.89	47.62	48.55	50.03	49.76	45.45	45.98	50.22	45.29
표준편차	9.06	9.53	9.05	9.44	9.68	10.69	10.89	9.57	9.17	9.40

지 임상척도(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녀특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증, 경조증, 내/외향성)와 검사태도를 측정하는 4 가지 타당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989년에 출판된 검사 매뉴얼(한국 가이던스, 1989)에 따르면 각 하위척도들의 반분검사 신뢰도는 .48에서 .8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내적 합치도는 .55에서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검사신뢰도는 2주를 평균 간격으로 하였을 때 .52에서 .8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에는 현재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된 MMPI 하위척도 상에서의 평균 T점수와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PBI(Parent Bonding Instrument).** PBI는 부모의 양육차원을 돌봄과 과잉보호로 정의하고 16세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 각각에 대해 25문항 상에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Parker(1979, 1981)는 자녀의 정신적 부적응은 부모로부터의 사랑에 대한 결핍 외에도 지나친 간섭과 관련이 있음을 가정하고 이들 문항들을 PBI에 포함시키고 피검자들의 정신건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두 요인들과 우울증간의 유관성은 상당히 일관된 것(Parker, Kiloh, & Hayward, 1990)으로 확인되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7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송지영(1992)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이후 연구들(송지영, 1992; 정승환, 1998)에서도 하위척도들의 내적 일관성이 .82에서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

PBI 척도는 한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요인분석이 실시된 적이 없었기에 아버지에 대한 척도와 어머니에 대한 척도 각각을 요인분석 하였다. 표 2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문항에 대한 요인별 부하량이, 표 3에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문항에 대한 요인별 부하량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어머니와의 결합(bonding) 유형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은 4개의 내재적 요인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리맥스 회전을 사용하여 주축 요인 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존재하였는데, 이 때 이들의 고유치는 3.61, 2.63, 2.62, 2.24였으며 이들의 설명량은 14.44%, 10.52%, 10.49%, 8.97%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네 개의 요인이 총 분산을 설명하는 양은 약 44.41%이었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각 요인들이 측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자면 우선 첫 번째 요인은 ‘감정적 지지’로서 원 저자가 발견하였던 돌봄 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가와 관련된 ‘재량권 허용’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앞의 두 요인과는 성질이 좀 다른데, 이는 관심이 지나쳐서 간섭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요인은 원 전자가 주장하였던 ‘과잉보호’에 해당된다. 마지막 요인의 내용을 살펴 보자면 돌봄에 해당하는 문항들 중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해석하자면 ‘원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이 요인은 단지 세 개의 문항들만이 유의한 수준의 요인

표 2. 어머니의 양육태도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커뮤넨리티
11. 나와 함께 대화하길 즐겼다.	<b>.70</b>	.17	-.05	.17	.48
12. 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주셨다.	<b>.68</b>	.20	-.05	.19	.49
6. 나에게 다정다감했다.	<b>.60</b>	.20	-.06	.42	.56
17. 기분이 언짢을 때 기분을 풀어 주셨다.	<b>.57</b>	.16	-.04	.23	.39
24. 나를 칭찬해주셨다.	<b>.56</b>	.31	-.08	.21	.45
4. 나에게 쌀쌀하게 대하는 편이었다.	<b>-.48</b>	-.06	.28	-.27	.39
5. 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했다.	<b>.47</b>	.26	-.08	.43	.48
16. 나에게 원치 않는 자식이란 느낌이 들도록 했다.	-.37	-.15	.31	-.09	.29
18. 나와 가끔 이야기하셨다.	.30	.14	-.02	.00	.12
22. 내가 원하면 되도록 외출하게 해주셨다.	.20	<b>.67</b>	-.23	.10	.50
21. 원하는 만큼 자유를 주셨다.	.21	<b>.64</b>	-.26	.18	.52
15. 내 스스로 일을 결정하게 했다.	.19	<b>.52</b>	-.31	.22	.46
7. 나의 일은 내가 결정하도록 도와주었다.	.27	<b>.51</b>	-.20	.38	.51
25.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게 하셨다.	.33	<b>.50</b>	-.10	.14	.37
14.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듯 했다.	.37	<b>.40</b>	-.19	.34	.47
8. 나의 심리적 성숙을 원하였다.	.20	.27	.04	.16	.17
20. 자신이 곁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다.	-.04	-.13	<b>.66</b>	-.02	.39
13. 나를 어린애 취급하셨다.	-.06	-.15	<b>.66</b>	-.06	.39
9.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섭하려 했다.	-.14	-.16	<b>.64</b>	-.16	.48
23. 나를 과잉보호하셨다.	-.08	-.21	<b>.63</b>	.00	.39
10. 나의 개인생활을 침범하려 했다	-.17	-.20	<b>.62</b>	-.12	.46
19. 의존심을 갖게 하셨다.	.06	.09	.22	.05	.07
2. 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었다.	.35	.28	-.01	<b>.70</b>	.60
3.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도와주었다.	.25	.40	-.11	<b>.60</b>	.54
1.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주었다.	.52	.16	-.06	<b>.59</b>	.57
	3.61	2.63	2.62	2.24	
	14.44%	10.52%	10.49%	8.97%	

부하량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의 결합(bonding)도 네 개의 잠재적 요 인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방

식으로 수행되었던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1을 넘 기는 요인은 네 개 있었는데, 첫째는 ‘감정적 지 지’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첫 번째 요인과

표 3. 아버지의 양육태도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커뮤넬리티
12. 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주셨다.	<b>.74</b>	-.09	.08	.09	.54
6. 나에게 다정다감했다.	<b>.71</b>	.01	.18	.04	.60
11. 나와 함께 대화하길 즐겼다.	<b>.71</b>	-.00	.07	.13	.47
17. 기분이 언짢을 때 기분을 풀어 주셨다.	<b>.66</b>	-.02	.07	.12	.38
1.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주었다.	<b>.66</b>	.03	.13	.09	.56
24. 나를 칭찬해주셨다.	<b>.57</b>	-.09	.23	.10	.39
5. 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했다.	<b>.56</b>	-.08	.15	.27	.41
4. 나에게 쌀쌀하게 대하는 편이었다.	<b>-.48</b>	.25	-.07	.02	.37
14.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듯 했다.	<b>.44</b>	-.25	.27	.29	.40
2. 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었다.	<b>.43</b>	.06	.23	.27	.45
18. 나와 가끔 이야기하셨다.	.35	-.08	.05	.17	.15
23. 나를 과잉보호하셨다.	.07	<b>.61</b>	-.14	-.03	.33
20. 자신이 곁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다.	-.00	<b>.61</b>	-.07	-.03	.31
9.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섭하려 했다.	-.13	<b>.59</b>	-.30	-.09	.42
13. 나를 어린애 취급하셨다.	-.09	<b>.55</b>	-.09	-.07	.27
10. 나의 개인생활을 침범하려 했다	-.16	<b>.55</b>	-.29	-.02	.41
21. 원하는 만큼 자유를 주셨다.	.13	-.31	<b>.66</b>	.06	.41
22. 내가 원하면 되도록 외출하게 해주셨다.	.08	-.28	<b>.56</b>	.05	.35
25.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게 하셨다.	.23	-.12	<b>.44</b>	.04	.25
3.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도와주었다.	.31	-.13	.36	.33	.44
15. 내 스스로 일을 결정하게 했다.	.14	-.39	.36	<b>.46</b>	.43
7. 나의 일은 내가 결정하도록 도와주었다.	.26	-.26	.39	<b>.43</b>	.43
8. 나의 심리적 성숙을 원하였다.	.14	-.06	.05	<b>.42</b>	.16
19. 의존심을 갖게 하셨다.	.08	.13	-.03	.24	.07
16. 나에게 원치 않는 자식이란 느낌이 들도록 했다.	-.26	.31	-.04	-.16	.26
	4.21	2.39	1.86	1.09	
	16.83%	9.56%	7.44%	4.36%	

동일 요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과잉보호’로 아버지의 지나친 간섭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어머니와

의 결합요인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재량권 허용’ 관련 문항들로서 여섯 개 문항들 중에서 세 개가 현 표본에서는 .4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지

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세 개의 문항들은 역시 아버지의 허용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에 관련 있는 문항들은 동시에 세 번째 요인에도 .3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와 네 번째 요인은 서로 큰 변별력을 지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머니와의 결합에 관한 문항들과 아버지와의 결합에 관한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공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세 개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감정적지지’, ‘재량권 허용’, ‘과잉보호’이다. 각기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김동직, 한성열, 1997)을 설명하여 주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 가지 양육태도가 대학 신입생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하였다.

## 결 과

### 신입생들의 정신건강 지표

MMPI의 하위척도들 중에서 반응경향성을 측정하여 주는 L, K, F 척도의 점수들은 주요 결과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4에는 반응경향성을 측정하는 L과 K척도들 상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응답자들의 정신건강 지표가 정리되어 있다.

MMPI 점수 상에서 나타난 ‘2001 신입생들의 정신건강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임상척도들 상에서 평균 점수들이 규준집단의 평균 정신건강 수준보다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MMPI 점수 상에서는 성차이가 보고되고 있다(김중술, 1988). 남녀의 점수를 산출할 때 따라서 성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점수를 표준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유의한 남녀 차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5에는 타당도 척도 상에서 문제가 없었던 응답자들의 정신건강 척도 상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요약되어 있다.

동변량성 가정에 대한 Levene 검정의 결과 유의도 .05 수준에서 어떤 척도에서도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이 없었기에 그에 해당하는 *t*값을 살펴 보았다. 강박증, 정신증, 경조증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개의 척도에서 모두 유의한 남녀 차이가 드러났는데,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경향과 내향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들은 반면 반사회적 경향성과 편집증적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특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누계를 산출하는 문항 자체가 달랐기에 원점수를 대상으로

표 4. MMPI 하위 척도 상에서의 T점수 평균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녀특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증	경조증	내/외향성
원점수 평균	10.24 (4.94)	24.52 (5.52)	23.25 (5.16)	21.59 (4.72)	28.64 (4.94)	11.84 (3.79)	16.49 (7.63)	20.65 (9.79)	21.11 (4.09)	13.50 (3.53)
T점수 평균	49.27 (9.06)	46.89 (9.53)	47.62 (9.05)	48.55 (9.44)	48.55 (9.44)	49.76 (10.69)	45.45 (10.89)	45.98 (9.57)	50.22 (9.17)	45.29 (9.40)

괄호 안 표준편차

표 5. MMPI 원점수 상에서 나타난 성별 차

	남자	여자	<i>t</i> <sub>2172</sub>
건강염려증	9.77(4.89)	11.03(4.92)	-5.83***
우울증	23.93(5.44)	25.49(5.52)	-6.46***
히스테리	23.00(5.22)	23.82(5.02)	-4.03***
반사회성	21.86(4.72)	21.15(4.69)	3.40***
남/녀 특성	26.48(4.29)	32.17(3.75)	-31.44***
편집증	11.97(3.91)	11.61(3.58)	2.14***
강박증	16.40(7.64)	16.63(7.63)	-.68
정신증	20.72(10.11)	20.54(9.24)	.42
경조증	21.10(4.16)	21.12(4.00)	-.07
내/외향성	31.59(7.09)	32.85(6.89)	-4.06***

괄호 안 표준편차

\* *p* < .05, \*\* *p* < .01, \*\*\* *p* < .001

직접적인 비교를 수행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각기 서로의 성별을 기준으로 표준화된 점수들 상에서는 현재의 표본 특성을 비교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표준점수를 토대로 성정형화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남자들의 평균이 48.18(9.52)인데 비하여 여자들의 평균은 53.06(9.16)인 것으로 나타나, 규준집단에 비하여 응답자들 중 여성들이 보다 더 성정형화된 경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MMPI검사를 표준화시킨 김중술(1988)에 따르면 각 하위 척도 상에서 표준

점수 30이하나 70이상 되는 정상인의 비율은 약 5%라고 보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표본을 대상으로는 약 2.5%의 사람들이 각 하위척도 상에서 표준점수 70점 이상을 받고 약 2.5%의 사람들이 표준점수 30점 이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각 하위 척도 상에서 표준점수 70 이상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척도가 측정하고 있는 정신건강 지표의 문제가 정상의 범주를 훨씬 벗어남을 의미한다. 이 같은 기준은 현재 연구가 수행된 집단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상집단과 비교하여 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 6. MMPI 하위 척도 상에서 나타난 점수대 별 응답자 비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녀특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증	경조증	내/외향성
70점 이상	2.9%	1.7%	1.4%	1.8%	2.0%	1.1%	2.3%	1.6%	2.2%	.8%
보통	96.7%	96.0%	97.2%	96.6%	96.0%	94.0%	90.4%	95.9%	96.6%	93.8%
30점 이하	.3%	2.3%	1.4%	1.8%	1.9%	4.9%	7.3%	2.5%	1.2%	5.4%



표 7. MMPI 하위 척도 상에서 나타난 점수대 별 남성 응답자 비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녀특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증	경조증	내/외향성
70점 이상	<b>3.2%</b>	1.7%	1.3%	1.9%	1.1%	<b>6.2%</b>	2.2%	1.4%	1.9%	.3%
보통	96.8%	96.2%	97.6%	96.6%	96.5%	93.2%	95.2%	98.1%	96.2%	92.6%
30점 이하	0%	2.1%	1.0%	1.6%	2.4%	.6%	2.2%	.4%	1.9%	<b>7.1%</b>

표 8. MMPI 하위 척도 상에서 나타난 점수대 별 여성 응답자 비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녀특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증	경조증	내/외향성
70점 이상	<b>5.5%</b>	1.7%	1.6%	1.8%	<b>3.5%</b>	2.7%	2.4%	1.8%	<b>2.8%</b>	1.7%
보통	96.6%	95.5%	96.5%	96.5%	95.3%	95.3%	82.5%	92.2%	97.1%	95.8%
30점 이하	.8%	2.8%	1.9%	1.7%	1.2%	2.1%	<b>15.0%</b>	5.9%	.1%	2.5%

임상척도 상에서 70점 이상을 기록한 응답자들은 건강염려증 척도의 경우에 있어서만 2.5%보다 약간 더 많은 사람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나머지 척도들에서는 극단적인 점수를 지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 임상적 판단을 하는 데에 또 다른 기준이 되는 30점 이하 응답자들의 비율에 있어서는 편집증과 강박증, 내/외향성 척도에서만 2.5%를 넘는 사람들이 이 점수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2001년도 신입생들의 정신건강 지표가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한 분석을 남녀별로 따로 분석해 본 결과 비슷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표 7과 표 8에는 이들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분석 자료 중 응답자들의 남녀 구성비는 남학생이 1350명 여학생이 824명 있었다. MMPI의 임상척도들 중에서 극단치를 지니는 남녀의 비율을 비교하여 본 결과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편집증적인 경향이 높은 학생들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허나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강박증적 경향이 낮다고 보고한 학생들이 기준집단의

거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강박증 척도의 낮은 점수는 꾸준하고 성공지향적이며 불안하지 않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반영할 수 있다.

#### 부모의 양육태도와 신입생들의 정신건강

‘2001년도 신입생들의 정신건강 지표들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원학생들의 자료에 대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관계의 유형과 MMPI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때 상관계수들은 MMPI와 양육요인들의 표준점수들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양육태도 중 감정적인 지지 요인과 과잉보호, 그리고 재량권 허용 요인은 예상대로의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정적 지지와 재량권 허용이 부족할수록 정신건강 지표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보호 요인의 경우 대부분의 정신건강 지표들과 유의한 관련성을 지녔는데, 아버지의 간섭이 심



표 10. 정신건강 지표에 대한 양육태도의 설명력

	설명변수	b	b의 표준오차	t	R <sup>2</sup>	Δ R <sup>2</sup>	F
건강염려증	부 감정적 지지	-.12	.02	-.14	-5.38***	.038	72.41***
	모 과잉보호	.11	.02	.12	5.19***	.057	55.73***
	모 감정적 지지	-.07	.02	-.07	-2.77**	.061	39.83***
우울	부 감정적 지지	-.18	.02	-.19	-7.52***	.070	138.43***
	모 과잉보호	.11	.02	.12	4.95***	.090	90.75***
	모 감정적 지지	-.11	.03	-.12	-4.50***	.099	67.87***
히스테리	부 감정적 지지	-.13	.02	-.15	-5.73***	.041	79.17***
	모 감정적 지지	-.09	.02	-.09	-3.53***	.051	49.52***
	모 과잉보호	.06	.02	.06	2.63***	.055	35.42***
반사회성	부 감정적 지지	-.18	.03	-.19	-7.00***	.102	209.14***
	모 과잉보호	.13	.02	.14	5.95***	.036	145.27***
	모 감정적 지지	-.11	.02	-.11	-4.39***	.148	106.86***
	부 재량권 허용	-.10	.03	-.11	-3.16***	.155	84.71***
남/녀특성	모 과잉보호	.06	.02	.07	3.09**	.002	9.52**
편집증	부 감정적 지지	-.17	.03	-.16	-6.14***	.046	89.26***
	모 과잉보호	.17	.03	.16	6.84***	.076	76.17***
	모 감정적 지지	-.07	.03	-.07	-2.48*	.070	52.97***
강박증	부 감정적 지지	-.21	.03	-.19	-8.07***	.059	115.39***
	모 과잉보호	.19	.03	.18	6.91***	.098	100.29***
	모 재량권 허용	-.07	.03	-.06	-2.20*	.100	68.61***
정신증	부 감정적 지지	-.23	.02	-.24	-9.82***	.101	207.13***
	모 과잉보호	.17	.03	.17	6.59***	.151	163.43***
	부 과잉보호	.07	.03	.08	2.93**	.155	112.31***
	모 감정적 지지	-.06	.02	-.06	-2.54*	.157	86.09***
경조증	모 과잉보호	.15	.03	.16	5.51***	.033	63.45***
	부 과잉보호	.08	.03	.09	3.17**	.039	37.84***
	모 재량권 허용	.07	.03	.08	2.93**	.042	26.83***
	부 감정적 지지	-.06	.02	-.07	-2.83**	.046	22.20***
내/외향성	부 감정적 지지	-.15	.02	-.16	-6.50***	.045	86.73***
	모 재량권 허용	-.09	.02	-.09	-3.74***	.058	56.92***
	모 과잉보호	.09	.02	.09	3.87***	.062	40.83***

할수록 신입생들의 정신건강은 좋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역시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산출하였는데, 감정적 지지가 부족하고 허용적이지 않으며 간섭이 심할수록 정신적인 부적응을 더 많

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나 다른 정신건강 지표들과는 달리 남/녀 특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섯 개 양육요인의 공변량을 통제된 상태에서 개별 정신건강 지표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여 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건강염려증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양육태도 요인들은 아버지의 감정적 지지( $\beta = -.14, t = -5.38, p < .001$ ), 어머니의 과잉보호( $\beta = .12, t = 5.19, p < .001$ ) 어머니의 감정적지지( $\beta = -.07, t = -2.77, p < .001$ ) 요인들이었다. 세 가지 양육태도 요인들로 구성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1% ( $F_{3,1843} = 39.83, p < .001$ )이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감정적 지지가 적고 어머니의 간섭이 지나칠수록 응답자들의 건강염려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우울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모의 감정적 지지와 어머니의 과잉보호가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세 개의 변수는 약 10% ( $F_{3,1843} = 67.87, p < .001$ )의 분산을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beta = -.19, t = -7.52, p < .001$ ) 어머니( $\beta = -.12, t = -4.50, p < .001$ )의 감정적 지지가 적고 어머니의 간섭이 심할수록( $\beta = .12, t = 4.95, p < .001$ ) 우울 경향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히스테리 경향도 건강염려증이나 우울 경향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즉 아버지의( $\beta = -.15, t = -5.73, p < .001$ ) 어머니( $\beta = -.09, t = -3.53, p < .001$ )의 감정적 지지가 적고 어머니의 간섭이 심할수록( $\beta = .06, t = 2.63, p < .001$ ) 우울 경향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변수의 설명력은 약 5.5% ( $F_{3,1843} = 35.42, p < .001$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반사회적 성향은 아버지의 감정적 지지( $\beta = -.19, t = -7.00, p < .001$ )와 어머니의 감정적

지지가 적을수록( $\beta = -.11, t = -4.39, p < .001$ ), 그리고 어머니의 간섭이 심하고( $\beta = .14, t = 5.95, p < .001$ ) 재량권을 덜 허용할수록( $\beta = -.11, t = -3.16, p < .001$ )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포함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5.5% ( $F_{4,1842} = 84.71, p < .001$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특성은 단지 어머니의 과잉보호에 의해서만 유의하게 설명되었는데( $\beta = .07, t = 3.09, p < .01$ ), 이에 대한 설명력은 약 0.5% ( $F_{1,1845} = 9.52, p < .01$ )였다.

응답자들의 편집증적 경향은 우울이나 히스테리와 유사한 특성을 보였는데, 아버지( $\beta = -.16, t = -6.14, p < .001$ )와 어머니( $\beta = -.07, t = -2.48, p < .05$ )의 감정적 지지가 적고 반면 어머니의 간섭이 심할수록( $\beta = .16, t = 6.84, p < .001$ ) 더 부적응적 지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약 7.9% ( $F_{3,1843} = 52.97, p < .001$ )에 달하였다.

강박증적 경향은 아버지의 감정적 지지가 적고( $\beta = -.19, t = -8.07, p < .001$ ) 어머니가 간섭( $\beta = .18, t = 6.91, p < .001$ )을 많이 하는 대신 허용적이지 못할 때( $\beta = -.06, t = -2.20, p < .05$ )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이 포함되었던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0.0% ( $F_{3,1843} = 68.61, p < .001$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정신증적 경향은 부( $\beta = -.24, t = -9.82, p < .001$ ) 모( $\beta = -.06, t = -2.54, p < .05$ )의 감정적 지지가 적고, 부( $\beta = .17, t = 6.59, p < .001$ ) 모( $\beta = .08, t = 2.93, p < .01$ )의 간섭이 심할수록 좋지 않은 지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설명력은 약 15.7% ( $F_{4,1842} = 86.09, p < .001$ )이었다.

경조증은 아버지의 감정적 지지가 적고( $\beta = -.07, t = -2.83, p < .01$ ) 부( $\beta = .09, t = 3.17, p < .01$ ) 모( $\beta = .16, t = 5.51, p < .001$ )의 과잉보호는 심하지만 어머니가 지나치게 허용적일 때( $\beta = .08, t = 2.93, p < .01$ )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

의 설명력은 약 4.6% ( $F_{4,1842}=22.20, p<.001$ )이었다.

마지막으로 내/외향성의 경우 아버지의 감정적 지지가 적고( $\beta=-.16, t=-6.50, p<.001$ ) 어머니가 덜 허용적이면서( $\beta=-.09, t=-3.74, p<.001$ ) 간섭이 심하면( $\beta=.09, t=3.87, p<.001$ ) 더욱 내향적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이 포함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6.2% ( $F_{3,1843}=40.83, p<.001$ )였다.

#### 과잉보호와 신입생들의 정신건강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감정적 지지 요인은 응답자들의 정신건강 지표와 부적 관련성을, 그리고 지나친 간섭 요인은 정신건강 지표와 정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과잉보호와 간섭은 심하지만 감정적으로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자녀들의 심리적 부적응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김동직, 한성열, 1997; 정승환, 1998)에서는 부모의 감정적인 지지가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여러 번 확인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어머니의 감정적 지지 외에도 아버지의 감정적 지지가 청소년 후기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허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험적인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로 보고된 바가 없는데, 이번에는 따라서 회귀분석 결과 나타난 과잉보호 요인이 응답자들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부적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좀더 자세히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부모의 감정적인 지지 정도와 과잉보호가 응답자들의 정신건강 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일단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이들 두 요인 상 상하

집단을 산출하였다. 상하집단의 구분은 T점수 40점 혹은 60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즉 상위 15%에 속한 집단에게는 특정 양육요인 상 높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구분하였다. 이런 구분에 의해 산출된 양육요인은 4개였는데, 아버지의 감정적 지지, 어머니의 감정적 지지, 아버지의 간섭 요인, 어머니의 간섭 요인이었다. 이들 양육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2X2X2X2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건강염려증에 있어서는 아버지( $F_{1,1848}=4.83, p<.05$ )와 어머니( $F_{1,1848}=4.99, p<.05$ )의 지나친 간섭요인(과잉보호)에 의한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심한 경우 건강염려증 평균은 52.24(9.14)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48.93(9.14)이었다. 어머니의 과잉보호가 지나친 경우 건강염려증 평균은 52.36(10.44),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8.99(8.71)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요인간 상호작용 효과( $F_{1,1848}=4.90, p<.05$ )와 어머니의 지지요인과 과잉보호 요인간 상호작용 효과( $F_{1,1848}=5.51, p<.05$ )도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지지요인간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부모 양쪽으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응답자들(평균=53.38, 표준편차=9.33)이 부모 양쪽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은 경우(평균=48.59, 표준편차=8.80)나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가 있었던 경우(평균=50.97, 표준편차=9.23)보다 건강염려증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원 이상의 상호작용 중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모두 적고 어머니의 간섭이 심한 응답자들이 건강염려증을 더 많이 호소하였다( $F_{1,1848}=4.37, p<.05$ ).

우울증의 경우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 $F_{1,1848}=9.71, p<.01$ )가 적거나 간섭이 심한 경우( $F_{1,1848}=4.18, p<.05$ ) 증후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섭이 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감정적 무관

심은 응답자들의 우울 경향을 더 심하게 하였다 ( $F_{1,1848}=3.97, p<.05$ ). 어머니의 감정적 무관심과 과잉보호간 상호작용도 유의하였는데( $F_{1,1848}=6.67, p<.01$ ),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무심하면서 간섭만 하는 자녀들의 경우(평균=51.12, 표준편차=8.94) 나머지 집단들, 감정적 지지가 없지만 간섭하는 경우(평균=49.25, 표준편차=10.90) 또는 간섭이 적지만 감정적으로는 지지해주는 경우(평균=45.83, 표준편차=9.08)보다 우울증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무관심, 그리고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간 삼원 상호작용 역시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F_{1,1848}=6.26, p<.05$ ).

히스테리 경향의 경우에는 아버지( $F_{1,1848}=8.52, p<.01$ )와 어머니( $F_{1,1848}=11.50, p<.001$ )의 감정적인 지지 결여에 의한 주효과와, 아버지( $F_{1,1848}=4.79, p<.05$ )와 어머니( $F_{1,1848}=4.88, p<.05$ )의 과잉보호에 의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감정적 유대가 없는 아버지(평균=51.04 표준편차=9.98)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평균=47.21 표준편차=8.77) 응답자들의 히스테리 경향은 더 낮았으며 감정적 유대가 없는 어머니(평균=51.69 표준편차=9.76)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평균=47.00 표준편차=8.71) 응답자들의 히스테리 경향은 더 낮았다. 간섭이 심한 아버지(평균=50.22 표준편차=9.28)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평균=47.32 표준편차=8.95), 그리고 간섭이 심한 어머니(평균=50.09 표준편차=10.10)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평균=47.43 표준편차=8.81) 히스테리 경향은 더 낮았다.

반사회성의 경우 사원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로부터 감정적 지지가 없고 지나친 간섭만 하는 경우 응답자들은 가장 높은 반사회적 경향을 보고하였다( $F_{1,1848}=4.31, p<.05$ ). 아버지와 어머니의 간섭이 심한 경우 상호작용 효과( $F_{1,1848}=4.43, p<.05$ )도 반사회적 경향에 유의한 상승효과를 주었다. 아버지의 감정적 지지 결

여( $F_{1,1848}=21.66, p<.001$ ), 어머니의 감정적 지지 결여( $F_{1,1848}=19.33, p<.001$ ), 아버지의 지나친 간섭( $F_{1,1848}=8.18, p<.01$ ),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F_{1,1848}=4.35, p<.05$ ) 모두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회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의 남/녀 특성은 부모의 양육요인 중 아무 것도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증적 망상의 경우 모든 주효과와 아버지 어머니의 감정적 무관심의 상호작용( $F_{1,1848}=4.77, p<.05$ )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무관심한 아버지가(평균=54.87, 표준편차=11.34) 그렇지 않은 경우(평균=49.33, 표준편차=10.42)보다 편집증적 사고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고 무관심한 어머니(평균=55.15, 표준편차=11.58)가 그렇지 않은 경우(평균=49.14, 표준편차=10.28)보다 편집증적 사고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고 아버지의 간섭이 많으면(평균=53.90, 표준편차=10.74) 그렇지 않은 경우(평균=49.47, 표준편차=10.52)보다 어머니의 간섭이 많으면(평균=54.53, 표준편차=12.83) 그렇지 않은 경우(평균=49.46, 표준편차=10.21)보다 편집증적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증적 사고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간섭이 지나치고 어머니의 무관심이 상호작용을 야기하였다( $F_{1,1848}=6.25, p<.05$ ). 아버지의 간섭이 적고 어머니가 지지적일 때(평균=44.20, 표준편차=10.59) 아버지의 간섭이 심하면서 무관심한 어머니의 경우(평균=50.42, 표준편차=10.35)에서보다 강박증적 사고를 훨씬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감정적 무관심( $F_{1,1848}=11.78, p<.001$ )과 어머니의 과잉보호( $F_{1,1848}=6.45, p<.05$ )도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응답자들의 정신증적 경향은 아버지( $F_{1,1848}=28.35, p<.001$ )와 어머니( $F_{1,1848}=11.86, p<.001$ )의 감정적 무관심, 아버지( $F_{1,1848}=8.29, p<.01$ )와 어머니( $F_{1,1848}=20.62, p<.001$ )의 간섭 요인에 의해 유의

한 영향을 받았다. 네 요인의 주효과만이 유의하였고 어떤 상호작용 효과도 영가설을 기각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증의 경우에는 사원 상호작용 효과( $F_{1,1848} = 13.97, p < .001$ )와 두 개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치들을 살펴 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간섭이 심하고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무관심한 경우 가장 심한 경조증적 증세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향성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감정적 무관심 ( $F_{1,1848} = 6.25, p < .05$ )이 유의한 영향을 발휘하였는데, 지지적인 아버지(평균=44.87, 표준편차=9.33)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평균=48.50, 표준편차=9.78) 더 내향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유추되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2001년도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정신건강 지표와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정신건강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탐색하여 보았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기 후기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들(‘2001년도 신입생’)은 비교적 정신과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임상 척도가 전집 평균치를 밑돌았고 지나치게 점수가 높거나 낮은 응답자들의 비율도 규준집단에서보다 적었다. 따라서 이들은 비교적 적응적인 심리상태를 지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현재의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남학생들에 비하여 여학생들은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등의 기분장애 점수 상에서 더 높은 평균치를 지니고 있었으며 더 성 정형화되어 있고

편집증적이었고 동시에 내성적이었다.

둘째, 양육태도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원저자가 발견했던 3가지 요인 외에 돌봄에 해당하는 일부 문항이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 요인이 있었다. 군이 해석하자면 ‘원조’라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후 연구에서는 이 요인에 대한 추가분석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양육태도 문항에서만 유의한 요인으로 나온 것도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하였던 응답자들의 정신건강 지표는 그들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감정적 지지는 정신건강 지표와 부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은 정신건강 지표와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과 변량분석의 결과 반복적으로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비지지적이고 감정적으로 무심한 아버지와 간섭이 지나친 어머니를 둔 신입생들의 경우 여러 정신건강 지표 상에서 좋지 않은 징후를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정신 건강에 대한 남녀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분석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지표에서 성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내적인 특질의 차이가 아닌 사회 외적인 환경이 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기능적 가족구조에 대한 연구(김화자, 1998)에서 여학생들의 역기능 수준이 더 높았고 이는 부모와의 역할전도와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불안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된 바 있다. 또한 양육태도와 우울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정승환, 1998)에서도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높은 우울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청소년기의 적응수준을 예측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이전 연구들에서 아동들의 적응을 위해, 동성의 부모의 돌봄이 강조되거나(Camara et al., 1988) 아들의 우울수준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승환, 1998)에서 남자의 경우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의해 더 많이 우울 수준이 좌우되는데 이는 자신의 성 역할과 관련하여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많이 동일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마찬가지로 여자 대학생에서는 어머니의 돌봄만이 유일하게 우울수준에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별화된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진단적인 검사를 통해 나타나는 정신과적 징후는 규칙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김중술, 1996). 따라서 일차적으로 진단된 MMPI 결과를 토대로 문제행동이 예상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가 꼭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방적인 접근은 대학생들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적응과 문제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기본적인 검사자료를 통한 후속적인 면담과정에서 학생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는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부모-자녀관계는 중고등학교 시기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으며, 이러한 양상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공적인 독립이 자아정체감이나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닐 것이며, 향후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지각된 부모-자녀관계와 정신건강 지표간의

상관관계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에 관한 연구를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영, 김명식, 한옥자 (1998). 1998학년도 신입생 정신건강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6, 63-82.
- 권순명 (1993).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귀인간의 관계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동위 (1984). 1983학년도 신입생의 특성 및 의식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상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4, 9-44.
- 김동직, 한성열 (1997). 한국 대학생의 애착 유형 분포와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11(2), 91-110.
- 김양현 (1984). 서울교대 신입생의 심리검사 결과 분석. 서울교대 학생지도연구, 11, 55-78.
- 김중술 (1996).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화자 (1998).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역기능적 가족구조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남숙, 조영아, 최윤경 (1999). 1999학년도 신입생들의 적응양상에 관한 연구. 연세상담연구, 15, 46-53.
- 박병탁, 이중훈, 정성덕 (1986). 영남대학교 신입생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우울 및 불안 평가. 영남대학교 학생연구, 17, 43-59.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



- (5), 979-991.
-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 (1999). 연세상담연구, 15.
- 이지원 (1999).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승환 (1998).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와 대학생의 우울증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양은 (1979). MMPI 이상 프로파일에 미치는 제 요인.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16(1), 61-73.
- 차재호, 김순진, 구정숙, 이명선 (1987). 대학생활 적응 예언지표로서의 MMPI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22(1), 38-45.
- 추형식, 박용범, 한옥자, 고영 (2000). 1999학년도 신입생 정신건강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7, 25-44.
- 한국가이던스 (1989). 다면적 인성검사 실시요강. 서울: 한국가이던스
- Birtchnell, J. (1993). Does Recollection of Exposure to Poor Maternal Care in Childhood Affect Later Ability to Relat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2, 335-344.
- Blatt, S. J., Wein, S.J., Chevron, E. S. & Quinlain, D. M. (1979) Parental representations and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4, 388-397
- Parker, G. (1979).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138-147.
- Parker, G. (1981). Parental reports of depressives: an investigation of several explanation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 131-140.
- Parker, G., Kilioh, L., & Hayward, L. (1987). Parental representations of neurotic and endogenous depressiv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 75-82.
- Perris, C. (1988). A theoretical framework for linking the experiences of dysfunctional parental rearing attitudes with manifest psychopathology. *Acta Psychiatrica Scandinavia*. 78, 93-110.

## **Sex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Indices of the College Students and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Bonding on them**

**Soo-Jung Lee**

**Kyonggi University**

**Eun-Jin Le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observed university freshmen's mental health and the influence of their relationship with parents on it. In order to investigate respondents' mental stat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arents, MMPI and PBI battery were applied. Freshmen of 2197 answered the battery and there were 1360(61.9%) male and 834(38.0%) female students among them. Factor analyses of bonds with mother and father confirmed a three factor structure must be most plausible: 'emotional support', 'permission of decision-making', 'overprotection'. Next, the influence of bonding with parents was analyzed onto mental health of freshmen children. Results presented the respondents of this survey didn't have any serious symptoms of mental health but there were sex differences in detailed indices. As expected,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students' mental health and their bonding with parents and regression analyses showed parents' emotional support and overprotection might be most influential factors on their freshmen children' mental health.